

국정과제 TF 워크숍

국민적 통합과 목표에 대한 국민합의를 통하여 미룰 수 없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동북아 중심 자주적 국가 비전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서지에 괄호 열고 30분이라고 쓰여 있는데 30분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죠. 짧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새로 출범하는 국정과제와 명칭이 혼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각종위원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자리가 맞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람은 커 보이고 감투는 작아 보이고, 감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부탁드리면서도 초라한 자리 드리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정부의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일을 할 자리입니다. 자리, 감투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정을 갖고 일을 찾고 자리를 키워주세요. 하기에 따라 엄청 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중심추진위라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반발하기도 했지만 그대로 가는 걸 보니 이름이 좋은 모양이네요. 97년부터 동북아 중심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만 부자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세계질서가 북미와 유럽, 동북아로 재편될 거란 희망을 말한 것입니다. 번영과 희망, 안정, 한국의 자주적 국가 미래가 담겨있어 말했던 것입니다. 변방의 역사에서 중심의 역사로

전환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동북아시아 입니다. 동북아는 그 자체가 비전이며 실천해나갈 수 있는 알찬 과제입니다. 한국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미래입니다. 국민들과 공유하고 성공시켜 나가는 게 우리 미래를 열어어나가는 것입니다.

겉데기만으로도 한국의 비전을 담아내기에 충분하고 알맹이를 채우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보람을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면서 못했던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이 위축돼 있으니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위축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 집중도 더 이상 그대로 놔두어선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꼭 느끼지만 말을 하면서도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 원체 큰 틀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정말 해 봅시다. 끝장을 냅시다. 분권의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여러 행정조직 감안하면 그게 되겠나 싶기도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 수도권에 산업의 흡인력 집중돼 있어 엄두를 낼 수 없다. 또 교육의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비교하며 무슨 경쟁력이 되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떼어놓고 보면 이루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수도권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부가가치 산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이미 큰 압력이 돼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발목잡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행정, 교육, 산업적 측면에서 지방분산, 지방을 키워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접근하며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번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각 분야 분들이 여기 다 모이셨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구조적으로 정부혁신, 재정구조, 교육문제를 맞춰가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편리한 지역에서 살고, 교육받고, 사업하는 게 편합니다. 분산하려하면 자원을 지방으로 보내면 효율성 저하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저항의 빌미를 제공해서 정책자체가 좌초될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예고하고 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극복해가는 안정된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하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증명해가며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해서 힘을 합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어떤 혁명보다 더 큰 혁명을 해내는 겁니다. 공직사회, 국가기틀 전체의 혁명으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행정수도, 농어촌, 노동, 차별 시정 등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목표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적 통합과 목표에 대한 국민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적 보조화, 오해와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국정과제들만 잘 풀리면 나라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엄살을 좀 떨었습니다. 참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시작과 같은 불안하고 불길한 조짐이 나타난다, 국민의 정부는 제대로 인사한번 해보기도 전에 편중, 정실인사, 친인척 얘기... 잘 한 것 다 어디가고 그것만 남았습니다. 50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욕먹는 일만 남고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욱 선생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통념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개혁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요구하거나 국민이 예상하는 인기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년 임기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시작한 일이 다 무너지지 않으면 1,2년 고생하면 국민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장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2년 고생하면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고 지지도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